

한 회사원이 충청도 지사에 발령이 나서 집도 이사하게 되었습니다. 일하는 아주머니를 불러서 새집 청소를 부탁드린 후에, 돈을 입금해 드리려고 전화로 계좌번호를 물었데요. 아주머니가 계좌번호를 불러주었습니다.

“29649632967296” 회사원은 아주머니가 불러주는 계좌번호를 받아적다보니까 번호가 이상하게 길었어요. 회사원이 숫자가 너무 길다고 아주머니한테 말했습니다. 그러자, 아주머니가 답답한 듯이 이렇게 말하는거예요. “뭘 소리유? 아직 4개밖에 안 불렀는디. 그럼 다시 부를게유. “2구유 4구유 3이구유 7이구유 ...”

같은 말을 해도 들을 귀 있는 사람이 듣습니다. 사투리도 들어본 사람이 들을 수 있지요. 우리 귀도 들을 귀가 열려 있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도 잔소리로 들리는 수가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건, 우리의 귀는 세상의 소리와 세상의 소식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더 귀 기울이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마가복음을 보면 당시 예수님의 명성이 크게 높아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 예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이 찾아왔어요. 그들은 예루살렘에서 온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그들이 예수님께 제기한 문제가 있었는데, 다름 아닌 “장로들의 유전”에 관한 것이었어요. 여기서 장로라고 하면, 유대인 종교 지도자들을 가리키죠. 유대교의 어른들을 말하고, “람비”라고 불리운 서기관들을 말합니다.

오늘날에도 어른들의 말씀을 귀담아듣는 것은 참으로 유익합니다. 어른신들은 삶의 지혜가 있으시잖아요. 산전 수전을 다 겪어 보셨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이렇게 하는 것이 좋더라든지, 저런 부분을 주의해야 한다든지 말입니다. 저도 인생의 선배님들의 이야기를 듣다보면 참 숙연해지는 순간도 있고, 격려와 위로가 되는 순간이 있습니다. 특별히 자녀 키우셨던 이야기를 듣다 보면 그렇더라고요.

하나님께서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백성을 언약 백성으로 삼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 이외에도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거기에는 많은 것들이 더해졌습니다. 이것이 나중에 “장로들의 유전” 이라고 불리게 된 겁니다. 여기에는 삶의 지혜와 같은 긍정적인 부분도 있지만, 사람을 얽어 매는 부정적인 것도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 한 예로 마가복음 7장에는 음식을 먹기 전에 손을 씻는 관습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들도 음식을 먹기전에 손을 씻습니다. 그리고 요즘은 코로나19 때문에 손 씻는 것이 더 중요해졌습니다. 바이러스 감염 예방을 위한 기본 생활 수칙으로 먼저 꼽히는 것이 손 위생이지요. 사람은 수시로 얼굴을 손으로 만집니다. 호주 뉴사우스 웨일즈대학교 연구진은 2015년 의대생들을 대상으로 소규모 실험을 진행했는데, 그 결과, 학생들은 평균적으로 한 시간에 23번 얼굴을 만졌답니다. 그중 눈, 코, 입, 같은 얼굴의 점막 부위를 만지는 횟수가 44%였어요. 눈, 코, 입은 세균이나 바이러스가 우리 몸 안으로 들어오는 핵심 통로인데 말입니다.

오늘날 코로나19 때문에 분명 손 씻는 것이 참 복잡? 혹은 구체화되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당시 장로들의 유전에 기록된 손 씻기는 어땠는 줄 아십니까? 그 씻는 물의 양과 질, 물 붓는 방법, 그것을 도와주는 사람, 손의 자세, 아주 구체적인 부분까지 서기관들에 의해 규정이 되었어요. 언제나 자세한 설명은 이해를 돕기도 하지만, 세부 항목들이 너무 많아지면 그것을 왜 하는지, 왜 지키는지 의미를 잃어버리는 경우가 종종 발생합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당시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러한 “장로들의 유전” 을 무시하고 대중 손도 씻지 않은 상태에서 음식을 먹었던 거예요. 예수님의 명성이 올라가면서 예수님을 경계하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이 일은 좋은 빌미를 제공하게 된 거예요. “딱 걸렸어” 가 된거죠! 그런데, 이 일에 대해서 예수님께서서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 을 폐하고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은 “인간의 유전” 을 지키는 데에는 많은 노력을 기울였지만, 그보다 훨씬 더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을 놓치는 우를 범했던 겁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조직화되어지고 제도화되다 보면 문제들이 하나 둘씩 생겨 나지요. 오늘날도 교회들이 대형화가 되어가고 교단도 조직화가 많이 이루어졌는데, 순기능이 있는가하면 역기능도 있습니다. 역기능의 대표적인 건 형식에 치우치고 내용을 상실하는데 있어요. 교회를 오래 다녔고, 특별히 규모가 큰 교회를 다녔으면 각종 프로그램을 다 수료도 했는데, 일상에서 하나님을 경험할 수 없는 경우...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예수님 당시에도 하나님의 말씀보다 장로들의 유전이 더 중요시되었던 구체적인 예가 있었습니다. 바로 고르반이 이에 해당되었죠. 마가복음 7장 11절에 보면,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 라고 되어 있어요. 고르반 [코르반]은 원래 ‘예물’ 또는 ‘제물’ 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모든 제사를 표현할 때는 코르반이라는 단어가 먼저 붙습니다. 예를 들어 번제라면 ‘코르반 올라’, 화목제라면 ‘코르반 살라뎀’, 속죄제라면 ‘코르반 하타아트’ 라고 해요. 그런데, 예수님 당시에 고르반이 어떻게 악용되었는가 하면, 장성한 자녀들이 부모의 물질적인 필요를 봉양하는 책임이 있었는데, 십계명에도 “네 부모를 공경하라” 했거든요. 그런데 그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서 “고르반” 이라고 외치기만 하면 된다고 여긴거예요. 고르반이 뭐라했죠?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 고르반이라고 선포하면, 그 돈은 하나님께 속한 것, 즉 성물이 되기 때문에 부모님께 드리지 않아도 되었던 거죠.

그렇다고 정말 그 돈을 다 하나님께 드렸을까요? 아니예요. 당시에 사실상 맹세를 한 사람이 한 순간의 말 뿐으로 그치고, 실제로는 자기 소유로 계속 가지고 있는 일들이 많았다고 합니다. 장로들의 유전을 가지고 교묘하게 부모를 공경하라는 하나님의 계명을 기만하는 악습이 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예수님께서서는 그들을 향해 “외식하는 자들” 이라고 꾸짖으셨습니다. 여기서 “외식” 이란 연기하는 것을 말합니다. 속마음, 진심은 감추고 겉으로만 그럴 듯하게 가장하는 것을 가리키지요. 해서 예수님께서서는 이사야서의 예언을 인용해서 그들을 책망하셨습니다.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가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이것은 예수님 당시 타락한 유대교의 실상을 잘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당시 유대교는 여러가지 복잡한 의식과 세부조항들과 엄격한

규율들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 마음은 하나님에게서 많이 떨어져 있었던 거죠. 하나님 말씀으로 자신을 돌아 봐야 하는데, 다른 사람을 향하여 판단하고 정죄하는 용도로 오용 혹은 악용했던 겁니다.

이런 외식적인, 형식적인 그들을 향하여 예수님께서서는 “마음의 성결” 을 강조하신 말씀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부분입니다. 외적인 정결! 분명히 중요합니다. 하지만 외적인 정결보다도 마음의 성결이 먼저고 훨씬 더 중요해요! 교회에 오래 다니다보면 교회 안에서의 생활에 익숙해집니다. 그러다 보면 좋은 점도 있지만,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중심이 깨끗해지지 않아도 얼마든지 다른 사람들 앞에서는 거룩한 것처럼 보여 질 수 있어요. 다른 사람도 속을 수 있고, 심지어 자기 자신도 얼마든지 속일 수 있어요. 당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그러했다고 예수님께서 질책하셨잖아요!

내가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씻겨지지 않았는데도, 내 마음이 성결할 수 있습니까? 정말,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은 마음의 성결을 갈망하십니까??? 예수님의 말씀처럼, “입에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음식을 먹기 전에 손을 씻어야 하지만, 손을 씻느냐 안 씻느냐 묻기전에 마음을 성결케 했는지 점검해 보라는 거죠! 이처럼 예수님께서서는 신앙생활을 통해서, 여러분의 마음이 오늘도 예수 십자가의 보혈로 성결케 되고자 하는지를 중요하게 보셔요.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사람의 마음을 감찰하시는 살아 계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 “마음의 성결” 인데요, 성결은 거룩하고 깨끗하다는 말입니다. 본질적으로 사람 스스로가 도를 열심히 닦는다고 해서 성결할 수 있는게 아니에요! (물론 남들보다 좀 나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정결타고 자랑할 사람은 이 땅에 한 사람도 없습니다!) 오늘날에는 종교 다원주의가 팽배해서 뭘 믿어도 구원이 마지 임하는 것처럼 말하는 경우가 많은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는 성경은 그렇지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성결은 세상적인 것에서 분리되어 “하나님께 드려진 것” 이나 “거룩하게 된 것” 을 가리키는 말로 사용되었어요. 히브리말로는 [코데쉬(qodesh)]라고 하는데, 그 뜻은 “질라냄, 분리함” 을 의미하는 말로 “더러움과 분리된 상태” 를 말해요. 나 스스로 세상을 끊어냈기 때문에 성결하다는 말이 아니구요, 하나님을 가까이함으로 죄악된 사실이 잘라지는 거예요.

그런 찬양있지요! “예수 십자가의 흘린 피로써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더러운 죄 회개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 의지하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 속에 여러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코데쉬]라는 단어가 한글 성경에서는 대부분 “거룩” 으로 번역되었습니다. “성결” 이라는 단어는 하나님을 때어 놓고는 사용 자체가 불가능한 단어예요. 하나님께서 계신 곳이 성결한 곳이라고 출애굽기 15장 13절도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성경에서 사용되는 “성결하다” 는 말은 하나님과 그의 백성의 관계에 관한 말이기도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섬기는 레위인은 성결해야 했구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신실하지 않았을 때는 성결을 상실하기가 쉬웠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 가까이 있을 때에만 성결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다가 신약에 와서는 그 의미가 좀 다르게 사용되었습니다. 구약성경에서 “성결” 은 주로 육체에 관한 것이었던데 반해, 신약성경에서는 “성결” 을 마음의 문제로 적용해서 그리스도인은 세상의 여러 것들을 사랑하는 나뉘어진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한마음, 성결한 마음을 가져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똑 같은 아이디어를 말해도 이 이야기를 누가 했는지에 따라 평가가 달라지는 경우가 있어요. 사실 모든 분들이 경험해 보셨을 줄로 압니다. 똑 같은 제품을 광고해도 모델에 따라서 제품의 판매량이 달라지구요, 똑 같은 말을 해도 어떤 친구가 말하느냐에 따라 신뢰도가 달라지기 마련입니다. 해서 사람을 설득할 때, 메세지보다 중요한 건 그 메세지를 전달하는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하지요. 하나님의 메세지를 전하는 우리가 구별된 삶을, 성결한 삶을 살아야 하는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의 일상이 찬양과 감사로 채워질 때 사람들은 여러분이 전하는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게 되는 겁니다. 내 삶이 맨날 불평과 불만과 얼굴에는 근심과 좌절과 두려움이 가득한데, 저 사람 교회다니는데! 해보세요. 손가락질할 뿐이죠! 바라기는 여러분의 일상이 먼저 바른 예배로, 기도와 말씀으로 채워지시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찬양과 감사로 채워지시길 바랍니다. 한 가지 이야기를 나누고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자녀가 있는 분이라면 식탁에서 이런 대화 한번쯤 나눠 보셨을 겁니다. “엄마, 나 밥 안 먹을꺼야!” “아

빠, 나 나물 반찬 먹으면 뭐 사줄거야?” 이런 대화 말이죠. 사실, 밥을 먹지 않으면 배고픈 건 “아이” 이지요. 나물 반찬을 먹어서 건강해지는 것도 “아이” 구요. 하지만 이 이상한? 대화에서 엄마 아빠는 기꺼이 지는 역할을 맡습니다. 밥을 먹도록 달라고, 나물 반찬을 먹으면 선물을 주기도 합니다. 왜 그럴까요?

바로, 사랑이겠죠! 그런데, 때론 하나님과 우리도 이런 이상한 대화를 나누곤 하지요. 분명 따지고 보면 나를 위한 것인데, 하나님께 인도해 달라고, 축복해 달라고 조르곤 하지요. 그래도 참 감사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넘치도록 사랑하시기에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앞에서 고르반 이야기를 드렸는데, 이 단어의 어원은 [카로브]라는 단어에서 왔다고 합니다. [카로브]라는 단어는 거리적으로 “가깝다” 라는 것을 표현할 때 사용되었어요. 이 단어에서 제사를 의미하는 코르반이라는 단어가 나왔기 때문에 결국 코르반은 “가까이 다가간다” 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결국 원래, 바른 관점에서 제사란, “하나님께 가까이 다가가는 것” 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어요. 떡 먹는데 손씻었냐 안씻었냐, 정장을 입었냐 안입었냐, 파마는 했냐 안했냐, 화장은 했냐 안했냐, 그런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 무엇보다 여러분의 중심이 예배를 드리실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씻김의 역사가 있으시길 간절히 바라고,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감사와 기쁨으로 충만하시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